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2. 3. 28.(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부서	부동산산업과	담당자	• 과장 유삼술, 사무관 최용관, 주무관 박양숙 • ☎ (044) 201-3415, 3420	
보도일시		2022년 3월 29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9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-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... 업계의 적극 자율시정 노력 당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‘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’ 결과를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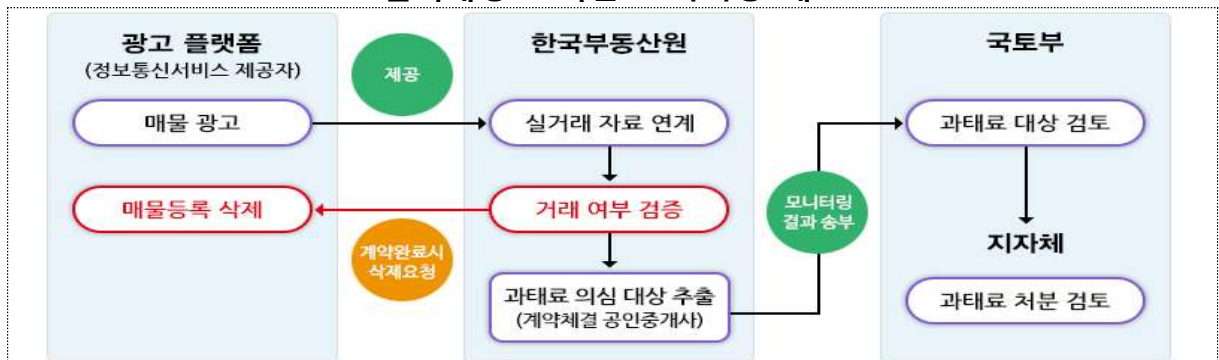
○ ‘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’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‘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’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*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으며,

* 기존 감시센터를 통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광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 실시 중

○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*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.

*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, 향후 모니터링 범위 확대 예정

<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개요 >



□ 이번 ‘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’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

○ 조사 결과,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7,705건*으로 나타났으며,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.

*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,400건으로 나타남

<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결과(22.1~2월) >

구분	조사 광고(A)	미삭제 광고(B)	직접 계약 후 미삭제 광고(C)	미삭제 비율(B/A)	직접 계약 후 미삭제 비율(C/A)
1월	1,385,896건	18,705건	4,148건	1.35%	0.30%
2월	1,358,292건	19,000건	4,252건	1.40%	0.31%
합계	2,744,188건	37,705건	8,400건	1.37%	0.31%

□ 한편,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,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.

*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,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

○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,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,

○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.

- 이에 따라,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,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,
 -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“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,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”면서,
 - “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최용관 사무관(☎ 044-201-34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